

# 베트남의 대외경제정책과 대미관계 개선전망

홍규덕\*

## 목 차

- I. 서론
- II. 도이모이정책 이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 III.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대외경제정책 전환의 필요성
- IV. 베트남의 대미관계 개선 노력과 한계점
- V. 결론

## I. 서론

최근까지 베트남은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황금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시켜왔다. 지난 10년간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골드러쉬에 동참하고자 하는 국가들간의 경쟁속에 매우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 왔다. 결국 미국이 1994년 2월 3일 종전후 19년 동안 유지해 온 무역금수조치(embargo)를 해제하고 연락 사무소 개설을 합의한 것도 따지고 보면 베트남시장에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미국 기업들의 거센 압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베트남 당국의 개혁 속도와 범위가 지나치게 더디고 미흡하다는 견해가 해외 투자자들과 서방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하다.

한편, 베트남의 당과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룩한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자부심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속에서도 무분별한 개방정책이 빚어낸 피해와 손실에 관해서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6년 6월에 개최된 제8차 베트남 공산당 인민대표회의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베트남지도부는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회주의의 기본정신과 바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즉 당의 많은 원로들은 경제성장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측면 즉 점차 확산되어가는 각종 사회악과 비리, 그리고 사회주의 정신의 이완을 매우 위험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당내 개혁파들 역시 사회주의의 미래를 우려하는 보수원로들의 조언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베트남사회는 시장경제도입이후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이모이정책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베트남사회의 다원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구를 확대시킬 것이다. 현재 연 9.5%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은 베트남인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욕구에 비교적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학자 테드 거(Ted Gurr)가 1971년 그의 저서 『왜 인간들은 반란을 일으키는가?』(Why Men Rebel?)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국민들이 폭력에 호소하는 시기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보다는 오히려 호전되기 시작하는 때라는 점이다(Ted Gurr 1970).<sup>1)</sup> 베트남인민들이 갖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경제지표가 향상됨에 따라 점차 늘어갈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고민은 인민들의 기대수준에 걸맞는 경제발전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연 베트남은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실패할 경우, 인민들의 불만족은 누적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aspiration gap)는 장차 베트남사회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베트남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경제정책의 개선과 보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가 곧 국내정치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선택은 국내정치변화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의 심화가 점차 커져가는 것이 20세기 말적인

1) 근대화는 대중들의 기대수준을 상승시키며 대부분의 신생정부는 대중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지 역부족이며 이러한 대중들의 희망과 현실과의 괴리는 폭동으로 가기 쉽다는 설명이다. 일반적 상식과는 달리 민중들의 폭동은 경제력이 악화될 때보다 오히려 호전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들은 Peter A. Lupsha 1971; Ivo and Rosalind Frierabend 1966, 249-71 참조.

특징이라면 *intermestic* 이라는 신조어가 잘 나타나 주듯이 모든 국제적인 사건이 곧 국내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국내정치적인 결정이 흔히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베트남의 대서방관계의 개선과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는 국내적인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요구되지만 결국 이는 역으로 국내정치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데 그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The real question is: What interests do we have to sacrifice if we adopt in these particular circumstances policy A, or B, or C, and so on? ...

There can be no action, and no government decision to act, without sacrifice.

노씨지(Northedge) 교수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어떠한 정부의 결정도 희생없이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F. S. Northedge 1976, 193).<sup>3)</sup>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던 그러한 결정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고민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글은 베트남지도부의 대외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해보는 것을 주요목표로 한다. 안정속의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더 늦기전에 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들을 비교하면서 베트남이 당면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베트남의 대서방관계개선 노력을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압축할 경우 지나치게 단순화(oversimplification)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글의 부차적인 목표는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관계개선 대상국인 미국과의 현안들을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매닝(Manning)은 특히 심화되는 상호의존적 경제구조속에서 국제문제와 국내적인 관심이 혼재되는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 international의 inter와 domestic의 mestic을 섞은 intermestic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감을 얻었다. Bayless Manning, 308-24.

3) 영국의 정치학자 노씨지교수는 국제체제에서 기회비용이 없는 행동이나 정부의 결정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II. 도이모이 정책이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 1.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

1986년 도이모이정책을 채택하기 이전 베트남은 당시 소련과 동구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을 위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교역을 해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이 크게 줄어든 베트남으로서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국들과의 교역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구소련이 1991년 1월 1일부로 무역협정을 개정하여 청산 방식을 철폐하고 소련의 수출상품에 대해 국제가격에 따른 경화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박문순, 하영호 1993, 79).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인민대표회의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대외경제관계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목표는 필요한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수출의 신장에 있다”<sup>4)</sup>고 판단한 베트남은 수출선을 다변화시키고 수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캄보디아 침공이후 서방세계로부터 장기간 철저히 고립당했던 베트남 경제는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서방과의 접촉을 재개하였지만 열악한 산업구조 속에서 수출을 확대시킬 묘안을 찾기 어려웠다. 베트남의 중요한 수출상품은 광물 및 원유수출, 쌀, 커피, 땅콩 등 농업생산품이 주종을 이루어 왔지만 필요한 수입을 충당할 만한 여력을 갖기 어려웠다.

따라서 베트남으로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이 가장 시급했고 이를 충족시켜줄 유일한 대상은 서방세계뿐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베트남 투자법을 하루 바빠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의 외국인투자법은 1987년 12월 29일 국회에 의해 승인되었고 1990년과 1992년에 개정되었으며 1996년 10월 새로운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외경제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9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대외경제정책이 다

4) Document of VI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p. 33 cited in *Vietnam's Economic Renovation and Foreign Economic Policies* (Hanoi: Social Science Publishing House, 1995), p. 254.

자간 틀속에서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던 제7차 베트남 공산당 인민대표회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베트남정부의 꾸준한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3차 당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 및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Vietnam's Economic Renovation and Foreign Economic Policies*, 1995, 208).

제7차 베트남 공산당 인민대표회의 이후 베트남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Vietnam's Economic Renovation and Foreign Economic Policies*, 1995, 209-211).

- 1) 무역정책은 개방경제의 구축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 되어야 한다.
- 2) 대외경제분야에 있어서 국가독점원칙으로부터 모든 경제영역에 관련된 생산 및 경영단위에 외국업자들과의 협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3) 시장을 다원화하고 다변화해야 한다.
- 4) 쿼타 및 비관세에 의한 수출입 통제를 지양하고 관세와 같은 통제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 5) 시장교환환율을 단일화해야 한다.
- 6)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고 수출가공구를 조성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킨다.

## 2. 대외경제협력의 주요성과

베트남이 1986년 도이모이정책을 취한 이후 얻은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들자면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의 향상일 것이다. 91년-95년까지의 경제개발계획 5개년 기간 중 연평균 GDP 성장률 8.2%를 기록함으로써 당초 목표였던 5.5%-6.5%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1995년도에도 9.5%에 달하는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1996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준이면 1996년도 말에는 국민총생산 24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고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처음으로 300달러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Adam Schwarz 1996b, 46-48).

기아에 허덕이던 베트남은 세계주요 쌀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으며 이러한 수출은 1996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6년은 1995년보다 백만톤 이상 증산하여

약 2천6백만톤을 수확했고 수출실적 역시 1995년의 215만톤보다 상회하는 250만톤을 수출할 수 있었다. 또한 1995년 9월 기준으로 17.1%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도 1996년 9월 현재 약 2.9%로 매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Adam Schwarz 1996b, 46-48). 이는 1991년 당시 67.1%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대다수 인민들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었다. 결국 인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은 당의 권위와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이모이의 채택 이후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금융기관의 용자지급 재개와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해제 등이 성사되면서 매년 약 1백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ASEAN과 같은 지역기구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경제적 실리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

### 3. 대외교역의 실적분석

1975년 남북통일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의 베트남 교역실적은 76년 대비 수출은 23.4배(수입은 7.3배)로 증가하여 수출에 대한 수입비율(수입/수출)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수출이 지속적으로 급신장하고 있지만 무역역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베트남정부는 농업생산품, 수산물, 광물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표 1〉 지난 20년간 교역실적 추이

기간	수출(US백만)	수입(US백만)	수입/수출
'76~'80	1,602.5	5,779.3	3.61
'81~'85	2,862.4	7,953.5	2.78
'86~'90	7,065.5	12,685.7	1.80
'91~'95	16,926.0	22,138.8	1.31

지난 3년간 무역수지는 이전 5년간과 비교했을 때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76-96.7 기간 중 총수출은 미화 30,225백만, 총수입은 미화 52,039백만 달러로 약 21,780 백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평균 수입/수출비는 1.7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입초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베트남의 대외 수출현황을 <표2>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베트남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의 확보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역금수조치 해제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총 수출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베트남의 수출확대는 미국시장의 공략에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내 거대한 구매력을 감안할 때, 베트남으로서는 기타 신흥공업국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개편과 시설투자, 선진기술의 도입, 합작생산 방식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2> 수출분포현황

지역별 수출비율	국가별 수출비율
아태지역 80%	일본 20%
유럽 15%	싱가포르 17%
미국 2%	홍콩 10%
아프리카 3%	한국 9%
	대만 7%

현재 베트남은 608개 국영기업에서 수출상품을 생산중이며, 634개 수출입회사 중 600개가 국영이다. 여전히 국영기업들이 수출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베트남 수출의 특징이자 곧 문제점이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의 외형적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수출액은 미화 30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가공상품 수출 비율 역시 1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베트남정부는 수출입확대를 위한 경제외교를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출입과 관련된 사업을 902건이나 허가하였고, 세계 105개국과 통상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 중 약 60개 국가와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36개국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1978년 이후 서방세계로부터 거의 완전히 고립되었던 베트남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적극적인 대외 관계개선노력의 결과이며 소위 전방위외교의 성공적인 모형으로서 그 적극성과 탄력성을 과시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1995년말까지 약 460여개의 외국기업대표사무소의 개설이 허가되었으며, 현재는 53개국 1,760개의 각종대표사무소가 베트남내에서 활동중에 있다.

#### 4. 대베트남 외국인투자 허가현황

1995년말 기준으로 총 1,599건의 투자에 200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허가되었고 계속 추진중인 유효투자허가는 1,355건이며 미화 약 183억 달러의 규모이다. 현재 투자건수나 금액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 역시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현지 시장여건의 변화, 투자자의 자금사정, 파트너와의 불화 등의 이유로 244건 (약 미화 1억2천5백만 달러)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실정이지만 1995년 한해만도 394건에 66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허가됐으며 이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제외한 시멘트, 철강, 자동차조립 등 중공업과 통신, 호텔, 사무실, 무역센터, 위탁단지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포함하고 있다(Hoang Ngoc Nguyen 1996, 37-40).

그러나 1995년 10월의 World Bank 보고서에 의하면 95년 중 실제 투자집행 액수는 허가액의 25-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5년 한해만도 64건 (인가액 미화 6.4억달러)의 투자가 취소됐다. 프랑스 토탈사가 정유공장 사업의 참여를 포기한 바 있고 호주주의 피 앤 오(P & O)사가 호치민시 항만공사를 포기했다.

〈표3〉 년도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건, U\$ 백만)

구 분	'88~'90	'91	'92	'93	'94	'95	계
건 수	214	155	192	272	362	394	1,589
금 액	1,500	1,388	2,117	2,887	4,071	6,599	18,562

※ 자료원: MPI(총투자허가 기준으로 취소/철회된 Project 다수 포함됨)

주요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대만이 여전히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그 뒤로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미국 등의 순이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의 투자가 점차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4년까지는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으나 95년에는 총 투자 59건에 미화 1천 1백 58만 달러를 기록, 1994년보다 건수상으로 118.5%, 금액상으로 182.4%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쓰비시의 시멘트, 노무라그룹의 하이퐁 공단조성, 토요타의 자동차조립, 일본유리의 유리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부터 제과, 호텔, 운송 등의 소규모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 금액상으로 6위의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95년 중 미국의 투자는 25건에 약 830만 달러 규모를 진행시켰다. 1994년 대비 건수 25%, 금액 277% 증가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94년 2월 엠바고 해제와 95년 7월의 국교정상화이후 증가일로에 있으며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참여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주요투자자들인 아시아의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총투자액의 40%가 화교자본이며 그들의 투자업종도 저임을 노린 단순제조업, 호텔, 관광 서비스업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표4〉 국가별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건, U\$ 백만, %)

	'95년			'88~'95			
	순위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대만	1	62	1,213.5	238	17.6	3,319.7	18.1
홍콩	10	26	153.8	186	13.7	2,154.9	11.8
일본	2	59	1,187.9	129	9.5	2,081.6	11.4
싱가포르	6	38	386.9	114	8.4	1,524.0	8.3
한국	4	47	556.3	137	10.1	1,506.5	8.2
미국	3	25	830.4	54	4.0	1,141.7	6.2
호주	9	9	189.0	47	3.5	703.2	3.8
말레이시아	16	12	93.7	43	3.2	854.6	4.7
프랑스	13	14	125.3	70	5.2	638.6	3.5
스위스	18	3	50.0	15	1.1	584.8	3.2
버진군도	5	22	413.3	29	2.1	514.3	2.8
네덜란드	15	9	108.3	23	1.7	383.0	2.1
영국	14	5	119.9	19	1.4	477.1	2.6
태국	11	14	150.7	57	4.1	463.2	2.5
C.I.S	23	3	12.0	32	2.4	129.4	0.7
기타	-	46	1,008.3	162	12.0	1,834.0	10.0
합 계		394	6,599.3	1,355	100.0	18,310.6	100.0

\*자료원: MPI('96.1.2 기준 유효투자)

부분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제조업에 793건 (58.5%), 호텔, 관광산업에 239건 (17.6%) 이 투자되었으며 서비스업 65건의 순이다. 석유가스업 21건, 운송 통신업(45건), 건설업(27건) 외에도 수출가공구(EPZ)에 60개 업체가 투자하고 있다.

<표5> 부문별 대 베트남 외국인 투자허가 현황

(단위: 건, U\$ 백만.%)

부 문	투 자 건 수		투 자 금 액	
	건 수	비 중	금 액	비 중
일반 제조업	793	58.5	8,223.6	44.9
호텔, 관광업	239	17.6	6,343.6	34.6
서비스업	65	4.8	104.1	0.6
운송 통신	45	3.3	1,066.0	5.8
농업, 임업	34	2.5	305.3	1.7
금융업	18	1.3	250.3	1.4
공업단지 Infra건설	7	0.5	335.4	1.8
수출가공구 입주기업	60	4.4	202.7	1.1
건설, 주택	27	2.0	86.6	0.5
수산업	23	1.7	61.7	0.3
석유, 가스산업	21	1.5	1,125.5	6.1
합계	1,355	100.0	18,310.6	100.0

자료원: MPI('96.1.2 기준 유효투자)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남부 호치민시 및 인근 동나이, 송베지역에 대한 투자가 60% 이상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북부 하노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정부는 해외투자에 있어서 단순히 외국인자본유치 확대만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양보다 질을 고려하여 선별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1996년 8월 22일 외국인의 대베트남 투자법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티 녹 트린 베트남 투자기획차관은 외국기업들의 베트남합작업체에 대한 발언권 제고를 주요골자로 하는 신베트남투자법은 1996년 10월 중순 개최예정인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외투자 선별유치 원칙은 6월 29일 제8차 당인민대표회의에서 재확인 되었다.

〈표6〉 지역별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건, U\$ 백만, %)

지 역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 수	비 중	금 액	비 중
호찌민시	508	38.1	5,824	33.7
하노이시	223	16.7	3,675	24.5
홍나이성	148	11.1	2,428	10.0
하이퐁시	46	3.4	794	8.6
바리야-봉따우성	47	3.5	774	3.2
송배성	59	4.4	453	3.1
개안장성	4	0.3	338	2.7
꽝남-다낭성	36	2.7	497	2.3
하미이성	16	1.2	196	1.2
림동성	25	1.9	131	1.1
기 타	222	16.6	2,075	12.1
합 계	1,334	100.0	17,185	100.0

주요개정방향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를 희망할 경우 정부와 업종 규모 기술이전내역, 투자지역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의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베트남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1996-2000) 계획에 기초하여 해외투자유치 장려분야의 목록을 작성한다. 셋째, 투자관련법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규정의 간소화를 통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각종 부조리를 척결한다. 넷째,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하노이시 및 호찌민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고 경제특구인 『외국인 투자 촉진지역』을 설치, 동지역 투자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황영모 1996).

베트남정부가 해외투자에 대한 선별유치를 고려하게 된 배경은 ASEAN과 대미국교정상화, 대EU 경제통상협력확대 기본협정체결 등의 체결에 따른 자신감에다 미얀마나 기타 ASEAN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해외투자 유치경쟁에

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이동기 1996).<sup>5)</sup> 또한 그 동안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해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됨으로써 정치적인 비판의 소재가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게 되었을 것이다. 향후 베트남의 투자 유치전략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시켜 투자업종, 기술이전 범위, 실제투자 집행보장, 저개발 지역에 대한 우선투자 등 매우 엄격한 요구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현재 6차 경제 5개년계획기간(1996-2000) 중 미화 140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는 1995년 유치실적(66억 달러)의 2.1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 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개선사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의 베트남 투자사업에서 확보한 베트남화(Dong)로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 합작회사가 베트남의 타 경제주체와 신규 합작사업(J/V)을 설립할 수 있다. 셋째, 이사회 의 만장일치 승인 요건을 정관 수정, 사장 및 수석부사장, 수석의 임명 및 해고, 연간결산 및 차입 등의 분양에 한정시킨다. 넷째, 지분 양도시 양도차액에 대한 25%의 소득세를 부과하나, 단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측 투자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다섯째, 농림, 수산업 및 산간지역 개발 등의 경우, 토지 임차료 면제, 또는 최소한 8년간 법인세 면제 등의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섯째, 사업의 중요성 및 입지에 따라 재투자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준다(“신 베트남투자법 제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

특히 이사회 의 만장일치의 요건 완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합작지분이 30%가 안 되더라도 베트남 기업들이 내세운 이사들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당국은 향후 만장일치의 승인요건을 대폭 줄여나감으로써 외국투자자들의 권한이 늘어나게 되며 합작업체의 전체 이사들 중 2/3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대베트남 투자기피요인으로 제기되어온 대표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5. 투자유치환경의 취약점

미국의 금수해제 이후 1997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8억 6천만 달러,

5) 미국의 경제연구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기업들은 아시아 지역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시아주 3번째로 꼽는다.

세계은행(IBRD)에서 17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15억 달러, 일본이 5억 달러 등 55억 6천만 달러의 대규모차관이 베트남에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자금들은 도로, 전력, 농업수리시설, 교육, 의료 분야 등에 투자 될 것이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차관에도 불구하고 4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메콩강유역 개발 등을 포함하여 1백여개에 달하는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나 자체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0년까지 약 400억달러의 해외투자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해외투자를 성사시킬 만한 행정적인 개혁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베트남은 무한한 자원과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Why Are You Still Here? Investors Bet on Vietnam's Future," 1996, *Vietnam Economic Times* (March).

투자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 노동력이 부족했고 해외투자기업의 관리자와 노동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설정에 실패했다. 둘째, 투자를 위한 부지사용에 관련된 규제가 매우 복잡하다. 셋째, 외국인투자자들이 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관한 수입규제조항들이 매우 불확실하게 정의되어 있다. 해외투자업체의 판매세, 소득세, 순수이의 송출에 관한 세금적용이 문제가 있다. 넷째, 투자허가를 위한 신청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다섯째, 합작회사의 관리시 만장일치조항과 국가기관의 항시적인 간섭이 투자의 저해요인이 된다. 여섯째,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베트남의 법체제, 과도한 행정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와 느장처리, 부정 부패와 밀수, 정책의 불연속성 등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Hoang Ngoc Nguyen 1996, 40).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조재개와 미국의 금수조치해제의 결과로 증가한 해외직접투자들이 급속히 철수를 결정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의 대외경제정책 전반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정책이 탄력성과 적극성을 상실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국가기업의 개선과 취약한 재정체계를 개혁하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저조한 결과를 얻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로는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부채가 늘기 시작하며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Schwarz 1996b, 48).

따라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베트남경제는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향후 1년 이내에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 경제의 출발점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발전은 오히려 수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개혁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보 반 키에트 수상 스스로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은 1996년 8월 현재 무역적자 3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도에 비해 9억 달러이상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1996년 말에는 약 4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96년 8월까지 수입은 45% 증가하여 76억 달러인데 비해 수출은 그 반정도인 44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적자는 밀수품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에 유입되는 밀수품은 연간 약 10억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밀수를 중대한 국가재난으로 간주하고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국경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되는 물건이 전체 2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1996년 상반기만도 7천5백49건의 밀수를 적발하여 1천3백60만 달러의 상품을 압수했지만 근본적으로 밀수의 유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도이 머이, 밀수와의 전쟁,” 1995) 또한 국립은행들이 외환대출을 수입업자에만 허용하는 일도 더욱 적자폭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경제수준을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원조와 재외 베트남인들의 송금,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실제집행률이 상향되는 등 무역수지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의 증가, 은행의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국가기업이 베트남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는 베트남 지도부의 판단은 여전히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1996년 4월에 발표됐던 제8차 당인민대표회의를 대비한 예비보고서에서 “2010년 까지 국영기업이 60%를 차지할 계획”이라고 발표된 바에 대해 많은 비판이 뒤따랐고 한국식 재벌기업을 모방한 총회사(general corporation)들의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도 수출의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은 한국식 전략의 채택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III.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대외경제정책 전환의 필요성

#### 1. 종합적 평가: 성과와 착오

베트남은 1996년 4월 10일 제8차 인민대표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2020년까지는 신흥공업국(NICS)의 대열에 진입할 것임을 밝혔다("Draft Congress report goes public for nationwide discussion," 1996; "Vietnam to become NIC by 2020," 1996, 6; "Communist Party's drafted report ignites economic excitement," 1996, 7). 57쪽 분량의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도이모이 정책의 성공을 확인하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과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보고서 초안은 그동안의 주요공적으로 다음 5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사회경제분야에서의 개발속도의 가속화와 1991년-95년까지의 5개년 계획목표를 초과달성한 점을 가장 중요한 공적으로 간주했다. 둘째, 긍정적인 사회변화가 이룩되어 국민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확신을 키워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방위 및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 헌법의 수정과 국가 행정제도의 개혁 등 베트남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능동적인 외교 관계개선을 통해 고립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 활발히 참여한 점을 중요한 공적으로 간주했다. 특히 대외관계에 있어서 다원적인 외교를 펼치고 다변화에 성공했으며 국제기구에서 다자외교에도 적극 참여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외교는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했으며, 미국과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한 점을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했다. 특히 남아시아, 중동, 구소련, 동구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의 16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을 정도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했으며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등 미수교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에 주력했다. 이와 동시에 국제기구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따라서 보고서는 외교분야에서의 활발한 노력이 베트남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은 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환경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반면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잔존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베트남은 여전히 가난하며 생산에 있어서 적절한 경제상태와 소비절약을 추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내경제에 있어서 자본의 축적이 매우 미흡하여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둘째, 여러분야에서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생산과의 관계설정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셋째, 시장구조는 초보적인 상황에 머물러있고 사회 경제개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관리체도가 취약하며 재정, 은행, 물가, 경제기획, 토지 관리, 행정처리 속도가 여전히 크며, 예산 및 무역적자는 커지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확실하게 안정화 되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넷째,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부패와 밀수, 공공재산의 낭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토지, 자본, 세금, 수출입 등과 관련 심지어 법집행기관에서 조차 비행에 가담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의 편재가 도시 농촌간에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섯번째,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베트남은 사회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벗어났으나 아직 많은 면에서 위협이 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베트남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은 2000년 이후의 선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산업화한다는 방침을 천명했으며 지속가능(sustainable)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국영기업 등 정부관련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물론 금융, 보험 및 각종 거래제도 등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2. 2020년 및 21세기를 향한 목표

제8차 공산당 인민대표회의를 위해 작성된 정치보고서 중 베트남지도부의 대외상황변화에 대한 인식부분과 산업화에 대한 목표, 그리고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경제제도의 변화와 외교정책의 목표에 관해 그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의 문제의식을 찾고 또 평가해볼 수 있다.



## 1) 상황인식의 변화

보고서 초안은 소련 연방 및 동구유럽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퇴보를 인정하기 보다는 인류는 여전히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속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공화국의 존재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향한 국제정치조류의 변화에 대한 베트남지도부의 상황인식은 매우 정확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

보고서는 전세계의 파멸적인 전쟁 위험은 낮아졌지만 군부의 갈등, 국지전, 종교적 갈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며, 무기 및 군수물자의 생산 및 거래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테러리즘의 위협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구조적 이동과 생산 및 사회생활의 국제화도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본, 기술, 시장의 점유에 있어서 여전히 선진국과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들과의 차이는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지구촌은 어떤 한나라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보존, 인구 팽창, 질병과 같은 공통의 문제를 안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21세기는 복잡한 상호의존성에 의해 다자간의 협력과 해결방안에 점차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잘 인식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21세기 가장 역동적인 아·태 경제권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분석해볼 때, 베트남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21세기를 맞이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평화와 안정을 선호한다는 사실과 물리적인 힘보다는 연성의 힘(soft power 또는 cooptive power) 즉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나 협력을 유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보고서는 모든국가들이 그 크기에 관계없이 지역협력과 경제적 통합 및 무역 등의 범세계적 협력에 참여 횡수를 늘려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상이한 사회정치 체도를 가진 국가간에 상호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속에서 상호교류를 증진할 것과 선의의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과 국제사회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86년 이전까지 대결지향의 세계관을 갖고 있던 베트남으로서는 매우 급격하면서도 놀라운 대외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의식의 극복을 통해 국제사회의 모든 이슈에 정당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세계와 더불어 공존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다.

## 2) 산업화의 목표

서기 2000년까지 베트남은 일인당 GDP를 1990년의 두배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사회와 세계에 통합된 개방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주도정책과 효과적인 수입대체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베트남당국은 산업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간접시설확충과 새로운 경제기반 시설건설에 주력할 것이며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 교육, 문화, 정보, 국민체육, 환경보존에도 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 가. 산업화,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발 및 구조개선

첫째, 농수산, 임업, 수산업의 대량생산을 위해 생산방식을 보다 현대화한다. 특히 식량안보차원에서 2000년까지 3,000만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토지당 곡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업의 생산구조를 전환한다.

둘째, 제조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2000년까지 설탕 100만 톤, 직물 5억 미터, 종이 30만톤, 원유 1,600만 톤, 천연가스 37억 평방미터, 전력 300억 Kwh, 무연탄 1,000만 톤, 시멘트 1,600-2,000만 톤, 철강 200만 톤을 생산한다.

셋째, 국가통신시설의 개발과 현대화를 위해 전화통신망을 국토전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넷째, 관광 및 서비스산업(교통, 우편, 전신, 재정, 은행, 감사, 보험, 기술, 정보 등)을 육성하고 베트남을 아시아의 관광, 무역, 서비스의 중심지로 개발한다.

다섯째, 다양한 국토의 개발과 지역의 경제구조를 감안한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여섯째, 대외 교역관계를 효과적으로 확대시킨다. 국제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의 확대, 무역수지 적자의 개선과 수출입에 대한 수지균형에 힘쓴다.

### 나. 경제부문에 관한 정책

첫째, 사회경제의 간접자본과 주요시설 재정시스템, 은행, 보험, 주요생산시설에 대한 개발을 위해 집중투자한다. 효과적인 생산 분배를 위해 국가체제운동을 혁신 강화한다. 또한 국영기업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완전민영화가 아닌 국가자본

의 확대와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이윤추구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협동경제부분의 개발은 상호이익, 민주적 관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원칙을 따르게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넷째, 장기적인 사업운영과 투자를 위해 사유화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장려가 필요하다.

#### 다. 경제관리 메카니즘의 혁신

첫째, 시장구성요소의 조화로운 창출은 1)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보다 발전된 상품을 개발; 2) 노동시장의 원활한 구성; 3) 토지법의 공정한 적용과 주택문제의 해결; 4) 자본시장의 형성과 증권시장의 단계적 설립을 고려함으로써 발전시킨다.

둘째, 새로운 경제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당의 정책적 고려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경제 각 분야에서 전략, 계획 등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1년단위의 사업계획을 5년단위로 전환한다.

넷째, 재정정책은 다양한 자원의 효과적 사용, 개발 투자를 위한 자금 조성 확대, 국가재정의 통합 관리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화폐제도의 정착을 위해 재무조정 및 조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며 환율을 안정시킨다. 한편, 물가제도와 물가의 안정적 조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물가정책에 대한 개혁을 한다.

다섯째, 정부는 국제경제관리능력 및 효율 증대를 위해 각 분야의 개발계획을 설정하고, 개발노력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를 실행하며 안정적인 주변환경유지와 유망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한 법적 제도장치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라. 외교정책

외교관련 분야에 있어서 베트남의 향후 목표는 평화로운 주변지역의 지속적 안정과 경제개발에 보다 적합한 국제환경의 조성에 있다. 국제적 공통관심사를 다루는 국제기구와 회의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UN 및 비동맹국가연합, 국제금융관련단체, 세계무역기구 및 각종 국제비정부단체들과도 협력을 증진시켜나 가야 한다.

### 3. 대외경제정책 전환의 필요성 논쟁

위의 보고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지난 10년간의 개혁과정은 베트남지도부에게 충분한 자신감과 동시에 또다른 발전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을 목표로 신흥공업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계획들은 한마디로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지도부는 베트남이 당면한 취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과 국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도부는 보고서에서 도이모이정책이후 맞이한 대외개방의 도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시장메카니즘의 구조하에서 타국가와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제 교류와 문호개방을 통해 우리 인민과 당은 새로운 복잡한 상황을 내포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결국 현지도부는 1) 당의 노동계급지속과 강화; 2) 당의 정치적 잠재력, 혁명적 역량의 강화; 3) 당의 통합, 민주적 중앙주의 원리 적용; 4) 윤리적, 직업적으로 무장된 정예군 확보; 5) 당조직의 전투력 향상; 6) 당의 지도자적 입지에 관한 지속적 개혁; 7) 당운영과 집행에 대한 개혁 등 당의 운영절차에 대한 개혁과 당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앞으로 닥칠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당의 입장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 까지 열린 제8차 당인민대표회의석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1,198명의 대의원들은 현지도부 삼인방인 도 무어이 서기장, 레 독안 대통령, 보 반 키에트수상을 5년임기에 재선출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보수성향을 대변했다. 당대회에서 전 수상 응웬 반린 이나 보 응웬 지압 장군은 보다 신중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대부분의 대의원들 역시 개혁의 필요성은 역설했지만 급격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나 국내경제정책의 과감한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Adam Schwarz 1996a, 14).

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정치적인 단결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속도와 심도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베트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즉 개혁의 가속화를 주장하는 진보세력과 개혁의 파장이 베트남사회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속에서 당의 장기적인 권력장악 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보수주의세력간에 심한 내부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이나 군대의 신문에는 이러한 보수주의 진영의 우려가 잘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주도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주위국가들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개혁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무역수지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개혁의 완화는 투자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96년 3월 중 조사된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상당소는 연례보고서에서 베트남이 12개의 국가들 중 외국투자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평가된 바 있다. 심지어 베트남 계획투자부의 간부들조차 당의 원로들이 베트남의 투자유치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베트남은 위기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Adam Schwarz 1996a, 15).

새로 구성된 170명 정원의 중앙위원회는 보다 젊고 교육받은 계층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만 아직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 충분한 인물들이 적으며, 16명에서 19명으로 확대된 정치국 인원중(현인원 18명) 6명이 군과 보안부서를 대표하며, 보 반 키에트, 부수상 팜 반 카이, 쯔란 득 루옹, 전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쯔영 탄 상 등 4명만이 확실한 개혁파로 분류될 수 있는 실정이다(Adam Schwarz 1996a, 16).

새로 구성된 5인의 정치국 상임위원은 무어이, 안, 키에트에 이어 피우장군과 응웬 탄 덩 내부부 차관이 선임됐으며 이들은 당 중앙위와 정치국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제8차 당 인민대표회의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당의 지도력을 확대하여 개혁과 문호개방에서 오는 사회악을 제거하며 확실한 당의 영도하에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IV. 베트남의 대미관계 개선노력과 한계점

### 1. 베트남 금수해제 결정의 전개과정

오늘의 이 조처는 그토록 오랫동안 미국인들을 분열시켜온 문제를 뒤로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미래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상처를 감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갈라 놓았던 것이 무엇이었던, 이제 그것들을 과거에다 묻어 버립시다. 성서에서 기록한 대로 이 순간을 '치유하는 때, 건설하는 때' 로 만듭시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 7월 11일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깊은 상처와 분열로 점철된 과거를 묻고 기회와 상호 이익을 위한 미래를 바라볼 것을 제의했다.

한국전쟁 당시의 57만2천명보다 더 많은 숫자인 87만4천명의 미군이 전쟁에 참여했고 한국전 전사자 3만3천7백명보다 훨씬 많은 5만8천1백96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은 베트남전은 전쟁기간동안 미국사회를 가장 격렬하게 분열시켰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고 익숙치 않은 전쟁에서의 패배는 미국 국민들에게 위대한 미국의 신화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므로써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했다. 미국 경제 역시 지나친 전비소모로 인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으며 미국의 전통적인 세계경찰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더욱 큰 시련은 '베트남신드롬'이라는 전쟁 후유증으로 향후 미국 외교정책은 외교적 선택에 관한 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얻어내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베트남전의 충격과 좌절은 결코 미국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전상가족들과 포로 및 실종자들 가족들에게는 종결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클린턴의 대베트남 금수조치해제결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매우 신중하고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대베트남정책에 대한 변화 필요성은 이미 부시행정부 말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어느정도의 선에서 무역제재조치를 철회하고 또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부시대통령은 1991년 10월 대베트남 관계개선을 위한 4단계 일정표(Road Map)를 발표했고, 퇴임직전인 1992년 12월 14일에는 자국민들이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지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베트남기업들과의 상업적인 계약체결도 허용했으나 직접적인 거래의 집행만큼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정책변화는 1964년 이후 당시 북베트남 공산당 정권을 상대로, 또한 1975년 이후 부터는 베트남전역을 상대로 적용되어 온 미국의 대 베트남 무역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부분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결국 부시는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겠다는 자신의 취임연설 당시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무역제재조치 해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임기를 마감했다.

결국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제재조치의 해제와 관계정상화라는 무거운 짐은 행정부인 클린턴의 몫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 역시 이 문제를 자신있게 해결해 나갈 수 없었다. 미국의 국무성은 1993년 4월 2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사국 회의에서 베트남이 국제통화기금에 진 1억 4천만달러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베트남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용자를 얻어 국

제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프랑스나 일본측 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소련 문서고에서 발굴된 미군 실종자 처리에 관한 새로운 제보와 미국과 베트남간의 조기정상화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들의 항의에 직면, 급기야 입장변경을 유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 1993년 7월 2일 클린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의 IMF에 진 부채를 갚도록 용자해주는 것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 후, 따라서 국제금융 대출기구들로부터 상당한 원조가 베트남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학교시설 및 농업발전을 위한 용자부문에 제공될 수 있게 되었으며, 각국들의 베트남시장의 진출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2월 3일 백악관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지난 75년 이후 19년간 지속되어온 베트남에 대한 무역금수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으나, 이와같은 조치가 곧 양국간의 관계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미국내 반대여론을 감안, 이러한 조치가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미군들의 소식을 확인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선택했으며 만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팔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수조치가 다시 취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 결정과 의미

미국은 무역금수조치 해제 이후 베트남 시장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즉, 미행 정부는 타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상업외교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국제원조를 재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미국의 기업들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고대해왔던 미의회내 많은 의원들과 미기업측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이 베트남을 고립(isolation)시키는 기존의 정책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베트남의 정치를 개방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실종자의 확인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미의회나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상당한 견제와 도전이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다. 비록 무역제재가 해제되었지만 인권상황과 무역의 최혜국대우(MFN)를 연계시키고자 하는 여론도 있으며, 실종자에 관한 완전한 해결없이 베트남에 대한 관계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무역제재조치의 해제 결정이 곧바로 국교정상화로 가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국내불만세력의 회유가 정치적으로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린턴은 이러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존 맥케인 등 의회내 베트남전 포로출신 상원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1995년 7월 11일 역사적인 관계정상화를 단행했다. 사실상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무역금수조치의 해제결정도 상당한 정치적 모험이었다. 아직까지는 미국사회 곳곳에 베트남전의 상흔이 남아있고 클린턴 대통령 자신도 베트남전에 관련된 정치적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미국내 참전용사들은 2천7백만명에 이르며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미군은 5만7천명이며 실종자들이 약 2천2백64명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상당한 미국인들에게 베트남전은 여전히 증오의 대상이며 베트남인들과의 전쟁은 악몽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2월 3일 연락사무소 개설방침을 결정할 당시부터 1995년 7월 11일 국교정상화를 단행한 이후에도 실종자 조사를 위한 베트남측의 협력을 더욱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베트남측의 조사 및 유해 반환 등에 대한 협조수준에 따라 양교관계발전의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왔다.

1996년 11월 미국의 대선을 남겨두고 공화당의 밥 돌 후보로부터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줄속으로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베트남과의 구원을 청산하기 위한 그의 외교적 결정은 대체로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실종자 이슈에 대한 끈임없는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자신이 실종자문제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3. 국교정상화 이후의 미-베트남관계

1995년 8월 5일 국교정상화이후 최초로 베트남을 방문한 워렌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합동발굴단(Joint Task Force/Full Accounting Detachment 2)을 방문하여 유해송환식을 주관함으로써 미국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크리스토퍼 장관은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포로 및 실종자 이슈 이외에 베트남의 민주화와 인권상황의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표시했고 이에 베트남 보수주의자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Eun Ho Lee, et al, 1996, 264).

미국의 정책은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여전히 실종자문제와 관계개선속도를 연계하는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연계정책(linkage policy)을 유지하고 있다.



허셸 고버(Hershel Gober) 재향군인(Department of Veteran Affairs) 부차관은 월드(wold) 장군, 와이드만(Wiedmann) 국무성차관보와 함께 동남아 미군실종자 가족 전국연합대표와 5개 민간단체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대통령 특사로 1996년 3월 12일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의 가장 큰 목적은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실종자들의 숫자를 최대한 확인하는 데 있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파견된 방문단은 도무어이주석 및 베트남 고위층들과의 만남에서도 실종자 파악이 양국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문단은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7월에 발표했던 다음 4가지 주안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첫째, 미국인 유해의 발굴과 송환

둘째, 생존자 관측보고와 실종자 숫자와 실제 발굴된 유해수와의 차이해소

셋째, 라오스에서의 삼자 협조활동

넷째,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관한 가능한 모든 자료의 제공

클린턴 행정부는 현재 베트남정부가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버차관은 베트남측이 합동발굴조사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발굴노력에 대해 협조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방문조사에는 두배이상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 미국 방문단은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따라서 방문단은 베트남이 정보제공을 의도적으로 유보하고자 하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르 마이 베트남 외무차관에 의한 전쟁실종자 수색을 위한 베트남측의 독자적인 행동(unilateral action)을 환영한다고 했다.

방문단은 가족들과 향군단체가 최대 관심을 보이는 “마지막 본 실종자 사례”(last known alive discrepancy case)나 “특별유해목록”(special remains list) 그리고 “왜 그들의 유해가 수거 불가능한지에 관한 정보”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베트남측에 촉구했다.

한편 국무성 차관보 켄트 와이드만(Kent Wiedmann)은 1996년 6월 19일 군인사문제에 관한 하원 국가안보 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베트남은 국방성과 내무성 안에 실종미군들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고 획득하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했고, 미국은 베트남과 라오스내 추락현장이나 매장위치를 찾기위해 유해확인을 위한 베트남제보자를 불러 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러한 개선된 노력에 힘입어 1996년 1월에는 8명의 확인되지 않은 미군 유해를 발굴하여 송환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와이드만 차관보는 이러한 노력을 증거로 현재 미국은 매우 조심스럽게 관계 개선을 진행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렇다고 베트남측의 확답을 어떤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베트남측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발굴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러한 베트남측의 노력을 가속화 시키기위해서도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5월 23일 베트남전 당시 6년 반동안 베트남에서 포로로 억류생활을 했던 다글러스 피트 피터슨(민주당, 플로리다주 마리아나 지역구) 하원의원을 베트남대사로 지명했다.

피터슨 의원은 1991년 하원의원에 선출되기전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과와 특수치료프로그램 소장으로 봉직했었고 베트남전 당시 미공군 전투조종사로 작전중 격추되어 포로생활을 했다. 현재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관한 미소 공동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해왔으며 베트남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피터슨지명자는 그동안 의회과견단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두차례 방문했고 베트남의 많은 관료들과의 접촉을 유지해왔으며 같은 포로출신의원인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클린턴 대통령의 국교정상화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1,600여명의 실종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18명정원의 상원의외국위원회의 제시 헬름스(공화당 4선의원, 노스 캐롤라이나 주) 위원장을 비롯하여 10명의 공화당의원들은 여전히 클린턴행정부의 대베트남 관계개선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하원의원은 임기중에 신설된 정부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을 들어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의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베트남대사직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1975년 패망 직후 공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피터슨 대사지명자는 현재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로 대기중이며 선거를 앞둔 양당간의 대립을 고려할 때, 대사직 취임이 대통령선거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앤소니 레이크 미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은 1996년 7월 13일 베트남의 팡 트리 유해발굴현장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베트남의 협력으로 인해 미-베트남관계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공동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레이크 보좌관은 실종자문제는 미국에게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난민 재송환문제, 마약거래단속문제, 경제협력문제 등 미국이 논의해야할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 V. 결론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9월 20일을 전쟁포로 및 실종자 추모일로 선포하였다. 추모선언문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젊은 미국의 영령들이 전쟁포로 또는 실종자로 분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들 해결되지 않은 유해들의 확인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 번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포로 및 실종자 추모일을 선포하여 모든 정부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추모일을 기념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국민들의 상처를 아물게하기 위한 단순한 정치적인 제스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신드롬은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극복해야 할 중요한 도전의 대상이며, 분열된 국민의 견해를 한데 묶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클린턴행정부는 실종자문제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정부가 자국 국민들과 실종자가족들을 돌볼줄 아는 정부라는 (America takes care of its own.)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클린턴 대통령의 소신임을 밝힌바 있다. 그는 1996년 7월 베트남에서 행한 회견에서 미국이 베트남관계개선을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매우 의미있는 답변을 한적이 있다. 미국은 실종자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성실한 자세를 유도하기 위함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베트남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서 미국내의 분열된 여론을 극복하고 보다 합의된 국민정서의 바탕에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아픔못지 않게 베트남의 실종자들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며 미국내 해제된 비밀문서들을 베트남정부에 제공하여 베트남의 실종자들 수색에 협조해오고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미국관리들은 더많은 실종자들을 찾겠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작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클린턴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물론 클린턴행정부는 지나친 개선 속도지연과 실종자수색과 관련한 요구가 베트남정부내 일부로부터 반미정서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에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베트남의 경제적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장이

다. 현재 베트남 총수출중 대미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약 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클린턴의 재선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때, 하원전원과 상원의원 100명을 교체하는 1996년 11월 대선에서 미국국민들이 양당정치의 균형을 위해 공화당을 선호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상하양원에서 현재와 같이 공화당의 우세가 지속될 경우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이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대미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당내부의 보수성이다. 제8차 당인민대표회의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베트남지도부는 여전히 자본주의의 접목으로 인한 사회악들이 사회주의의 정신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당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도이모이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소생과 더불어 베트남사회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후발개도국으로 베트남이 가야할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베트남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본과 선진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본과 선진기술은 외부세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다 많은 외부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내 제도개선과 투자법의 개혁이 시급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상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전문가들과 베트남내 개혁주도세력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충격을 두려워하는 보수 원로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베트남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1996년 7월 제8차 공산당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된 정치보고서에 나타난 21세기에 대한 비전들을 과연 당의 영도하에 이룰 수 있을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두려운 변화를 피하는 것이 곧 안정된 발전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데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노씨지 교수가 지적한대로 어떤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희생의 댓가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베트남공산당의 고민은 그들이 희망하고 추구하는 안정도 경제적 성장이 계속 유지되지 못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정치적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은 경제적으로 희망이 전혀 없을 때보다 오히려 경제개발이 진행될 때가 더욱 높다는 어느 정치학자의 주장이 베트남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21세기 신흥 공업국의 대열에 진입할 것을 약속한 공산당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면 세계는 베트남인들의 저력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Communist Party' s drafted report ignites economic excitement." 1996. *Saigon Times* (April 11), 7.
- "Draft Congress report goes public for nationwide discussion." 1996. *Vietnam News* (April 10).
- "Vietnam to become NIC by 2020." 1996. *Saigon Times* (April 10), 6.
- Branigin, William. 1993. "Criticizing Embargo, Mitterand Raises Hopes in Hanoi."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10).
- Frank, Victor H., Jr. 1993. "Get on with It America and Recognize Vietnam."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4-25).
- Frierabend, Ivo and Rosalind. 1996. "Aggressive Behavior Within Politics, 1948-62."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10, no. 3(September), 249-71.
- Gurr, Ted.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rring, George C. 1991. "America and Vietnam: Unending War." *Foreign Affairs*, vol. 70, no. 4(Fall), 104-119.
- Hibert, Murray and Jonathan Friedland. 1992. "Hello, Uncle Nippo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26).
- Hoang, Ngoc Nguyen. 1996. "Review of VN' s Performance in Calling for Foreign Investment." *Business Vietnam* (January).
- Horvitz, Paul F. 1993. "Clinton is Booed at Vietnam Memori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
- Keith Richburg. 1991. "Back to Vietnam." *Foreign Affairs*, vol. 70, no. 4(Fall), 111-131.
- Lee, Eun Ho, et al. 1996. "Vietnam' s Doi Moi and the Political-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The Southeast Asian Review*, vol. 4(January).
- Lupsha, Peter A. 1971. "Explanation of Political Violence:Some Psychological Theories Versus Indignation."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1(Fall).

- Manning, Bayless. 1976. "The Congress, the Executive and Intermestic Affairs." *Foreign Affairs*, vol. 57, 308-24.
- Northedge, F. S. 1976.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London: Faber & Faber.
- Schwarz, Adam. 1996a. "Safety Firs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1).
- \_\_\_\_\_. 1996b. "Promises, Promises: Vietnam's leaders come under pressure to speed up reform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 Stier, Ken. 1993. "Getting the Aid to Vietnam Starte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5).
- United States Senate. 1993. *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n POW/MIA Affair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Vietnam's Economic Renovation and Foreign Economic Policies*. 1995. Hanoi: Social Science Publishing House.
- Young, Stephen B. 1990. "Negotiating the Slipping Slope: Hanoi's Search for Rapproch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n Thai Quang Trung, ed. *Vietnam Today*. New York: Crane Russak, 95-108.
- "On President Clinton's New Step on Vietnam." 1993. Press Release by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ermanent Mission to the U.N. No. 20(July 5).
- "Why Are You Still Here? Investors Bet on Vietnam's Future." 1996. *Vietnam Economic Times*(March).
- "도이 머이, 밀수와의 전쟁." 1995. 『한겨레 21』 제79호(10.12)
- 박번순, 하영호, 1993. 『베트남: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 서울: 주인.
- 이동기, 1996. "세계화시대의 국가별 경쟁력." 『매일경제신문』 8월 20일자.
- 황영모, 1996. "베트남 해외투자 유치강화." *POSRI Steel Daily* (1996. 7. 30), 2.